

눈 펑펑 내리는
겨울밤에는
배달 못합니다.



현대인들의
식사를 책임지는 **배달앱**,
전날 주문하면 다음날
오는 **택배**, 바쁠 때 큰
도움이 되는 **퀵서비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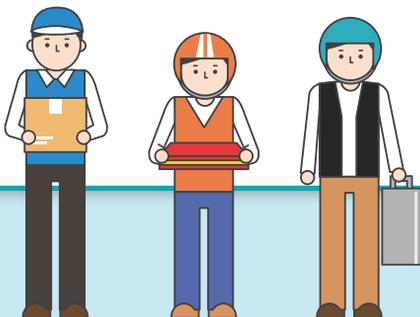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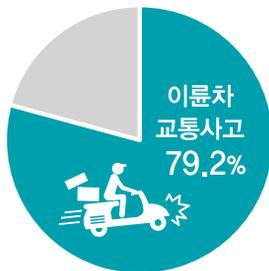
이렇게
우리가 누리는 편리함
속에 알지 못했던
어두운 면이 있다?



배달업
아르바이트를 하는
청년층의 평균 연령은
25.3세로
연령대가 매우 낮은
편에 속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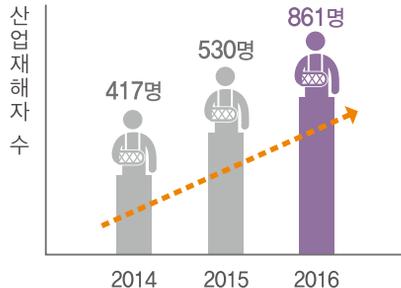
또한 이들 대부분은
개인사업자이며, 최근 3년간
음식업종 사고사망자 중
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이
79.2%를
차지하였다.



[음식업종 사고사망자]



택배업과 퀵서비스업
산업재해자 수는 최근 3년간
증가하여 **2016년에는
861명**에 이르고 있다.





연구자들은
배달업, 택배업, 퀵서비스
종사자들의 안전한 노동을
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
연구했다.



우선 폭설이나 폭우에는 배달이
어려우므로 고객에게 배달거절
의지를 알릴 수 있는
작업중지권을 마련할
필요가 있다.

(2019년부터 시범 도입 중)



또한 개인사업자이나 대부분
사업체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,
해당 사업주는 **보호구와**
안전모, 무릎 보호대 등을
지급할 필요가 있다.



마지막으로 배달업과 택배업 및 퀵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

-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
- ② 과도하게 빠른 배송 및 감정노동에
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.

출처

서비스산업 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연구
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)

※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